

금호타이어 525억 자구노력 성과에도 노조 비협조 아쉬움

정상화에 2922억원 필요...조직 축소 등 생존 안간힘

노조 자구안 거부...지역경제계 “골든 타임 놓칠라” 우려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회사 측에 강력 촉구한 것과 관련 금호타이어 사측이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채권단은 공문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과 금호타이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애타는 사측 “자구 노력 전제돼야 정상화 가능” 호소...자구안 실행 525억원 비용절감=이 같은 요청에 앞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해 12월12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구노력을 진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고심 끝에 마련한 자구안은 구성원들의 고용보장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타이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12.2%)을 기초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2922억)을 산정하고 회사의 현실과 경쟁력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목표금액 1483억(영업이익률 5.5%)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 무

급 휴무, 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차 기간 중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매지, 중단, 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실제로 사측은 자구안 발표 후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 일반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 개선과 판매 촉진을 위한 해외 영업망 정비 등을 통해 525억원 상당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또 자구노력을 통한 개선 금액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금호노조 금호타이어 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제시한 임금동결·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에 대해 ‘먼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자구안 동의 요구에 앞서 만능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공장 문제 처리와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일단협이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됐는데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협 해결도 자구안 동의의 선행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조 “중국 공장 처리 부채 해결이 우선” 대립각...지역 경제계 “협력과 희생으로 타협해야”=이처럼 대립각이 커지면서 사측은 노조가 위기상황에도 채권단과 경영진의 책임만을 거론하며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급여에 이어 1월 정기상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

이 바닥이고 이달 말 도래하는 막대한 차입금 상환과 계속되는 적자로 삼중고(三重苦)에 처해 있다”며 “회사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고통 분담인데 노조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를 거부하고만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회사가 제시한 방안에는 그동안 근무시간 미준수와 과도한 산재·휴직 등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정상적인 공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채권단과 시장의 신뢰를 얻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아차 광주공장은 임금협상 관련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고 동부대우 전자 역시 매각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마저 어려움에 있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지사가 최근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3차 또는 4차 협상테이블을 공식 제안하며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 경제단체도 불안감속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과 희생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구조조정의 수위와 고통분담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농협 “지역 농산물 이용해 주세요” 문화동에 3번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와 광주농협(조합장 한정섭)은 11일 광주농협 문화동지점을 이전하고, 1층에 농협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설 개장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농협은 3번째 로컬푸드직매장 개설로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의 기능을 수행,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는 무인 로컬푸드 6개소와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 등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 농가에서 당일 수확한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가지, 상추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7.91 (-11.84)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2)
↑ 코스닥 852.51 (+17.60)	↑ 환율 (USD) 1072.00원 (+0.10)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 교체

광주본사 19일 임시주총

글로벌 타이어 몰드(금형) 회사인 세화아이엠씨가 오는 19일 광주 본사에서 임시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과 사내이사를 선임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앞서 지난 3일 금융투자기업인 (주)얼라이언컴퍼니와 파인투자조합 등 2곳과 최대주주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세화아이엠씨의 최대주주인 유동환 부회장, 특수관계인인 채해성씨, 유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메자닌

캐피탈, 연극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인 주식 382만주(무상증자 후 916만8000주)를 매각하는 계약이다. 매각대금은 249억원이며, 매각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 수의 3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회사의 경영권은 얼라이언컴퍼니가 갖게 된다. 1999년 설립 이후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성장한 세화아이엠씨는 2015년 경기 악화로 적자로 돌아섰으며 매출이 감소하며 지난해 매출이익이 100억여원 떨어졌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기현테크, 치과 보철 합금 국내 첫 국산화

합금분말 수입 대체 효과·해외시장 진출 ‘기대’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주)기현테크(대표 채옥주)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치과용 3D 프린팅(보철용 Co 합금)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번 분말 국산화는 기현테크가 광주테크노파크의 분말제조장비 기술지원 및 지역 주력사업의 기술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상원 교수팀과의 산학연 지원에 따른 결과이다.

개발된 분말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된 치아의 수복재료를 금속 3D프린터로 제작하기 위한 Co-based 합금분말 금속으로 향후 치과산업이 디지털 CAD CAM에서 금속 3D프린터로 전환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분말을 국산화 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제조·혁신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3D 프린팅 산업은 현재 자동

차 항공우주 의료 기초 제조산업 등 전 영역으로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인체 내에서 안정하면서 물성이 우수한 소재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의료소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 메이저 장비 업체들이 전용 소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고가의 장비와 소재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완료되면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는 금속분말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의 Co-Based 다원계 합금 분말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채옥주 기현테크 대표는 “3D 프린팅 시장은 아직 누구도 선점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첨단산업 영역이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노력과 도전으로 의료용 금속분말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 위상을 확보해 지역의료산업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롯데백화점 ‘평창 스니커즈’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부터 9층 행사장에서 ‘평창 스니커즈<사진>’ 판매를 시작한다. 평창 스니커즈는 롯데백화점이 ‘평창 룩패딩’에 이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기획한 두 번째 상품이다. 천연 소가죽 소재로 제작됐으며, 신발 뒤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 ‘Passion. Connected’가 새겨져 있다. 사이즈는 220mm부터 280mm까지 10mm 단위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켤레당 5만원이다. 학생증을 소지한 고객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h3>북구, 삼각동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h3>나주, 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h3>콘도 / 무인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h3>공산면, 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h3>비금도, 팻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분할매매가 	<h3>거문도, 펜션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